

조선대 前총장 선거개입 의혹

양형일·김주훈씨, 후보 6명과 간접선거 당일 호텔 회동

전호중·서재홍·강동완 컷오프 통과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가운데 전직 총장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간접선거 당일인 20일 전직 총장들이 유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조선대 교직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대학 양형일, 김주훈 전 총장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이 광주시 동구 S호텔 일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했다.

전임 총장들이 추천한 이 자리에는 총 8명의 후보 가운데 현직 총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전호중 후보는 연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임모 후보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를 마련한 양 전 총장은 "어려

운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을 격려·위로하기 위해 김 전 총장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갈등없는 페어 플레이를 담당하는 자리였고, 탈락자 간 밀어주기 등 답합을 위한 자리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 후보를 배제한 것은 대학 내부 계산에 사실상 연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전 후보는 불려도 오지 않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대학계 시판에 "대학의 리더십이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 사람과 물은 흘러가야 한다"며 특정 후보 반대 입장을 명확히 선거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은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삭제했으나 일부 교수의 이의

제기로 다시 게재해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선거 기간 중 전호중 후보 선거 참모의 이메일이 현역 군인으로 부터 해킹당한다며 과천년들이 대학 이사가 운영하는 병원과 단과대 학장 연구실을 찾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대학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치러진 제 14대 총장 선거 1차 간접선거 결과, 총 110표(교수·직원·총동창회 투표자 343명)를 받은 전호중 후보가 32표를 얻었으며 서재홍(28표)·강동완(17표) 후보가 뒤를 이어 이들 3명이 본선거인 직접선거에 진출했다.

직접선거는 22일 치러지며, 총장추천위는 다득표자 2인을 오는 26일 열릴 이사회에 추천해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일 오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총장 선거 투표(1차 간접선거)가 마감된 뒤, 대학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9분 해질 18시 32분 달돋이 -시-분 달짐 14시 10분

완연한 가을
대체로 맑고,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되겠다.

광주	구름조금	14/25°C
목포	구름조금	15/22°C
여수	구름조금	17/22°C
나주	구름조금	13/26°C
완도	구름조금	13/23°C
구례	구름조금	13/24°C
강진	구름조금	13/23°C
해남	구름조금	12/23°C
장흥	구름조금	12/23°C
순천	구름조금	15/24°C
영광	구름조금	13/23°C
진도	구름조금	14/22°C
전주	구름조금	12/23°C
군산	구름조금	13/22°C
남원	구름조금	11/23°C
홍산도	구름조금	17/20°C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1.5~2.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2.0~3.0m	2.0~4.0m	☀️	🍷	😞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4	13/25	14/25	14/26	14/26	14/26

전남대 '이공계생 이탈' 최다

4년새 2356명... 취업난에 상당수가 수도권 진학

국립대의 자퇴생 10명 중 6명은 이공계생으로 '이공계 이탈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의 이공계 이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간 26개 국·공립대에서 총 3만3850명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꿨다.

이중 자퇴한 이공계 학생은 2만 895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퇴생(4만5천77명)의 64.2%를 차지, 자퇴생 10명 중 6명이 이공계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26개 국·공립대 가운데 전남대(2356명)가 이공계 이탈학생이 가장 많았고 부경대(2104명), 부산대(1922명)가 뒤를 이었다.

전남대의 경우 지역에 대기업이 적어 취업 문이 좁은 탓에 전공을 바꾸거나 자퇴후 비교적 취업문이 넓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상

당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국 9개 거점 대학에서만 1만3749명이 이공계를 떠나 전체 이공계 이탈학생 3만3850명의 40.6%를 차지, 거점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국·공립대만 집계한 것으로 사립대학까지 합할 경우 전국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학생의 규모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이탈현상은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이끌 인재들이 소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내 유치원·초·중 16곳 통폐합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3월1일 자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16곳의 문을 닫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여수자산초교 병설유치원 등 6곳이 초등학교가 없어지거나 취원 예상아동이 없어 폐지된다.

초등학교는 여수자산초 등 3곳이, 분교는 고흥봉래초 남분교 등 6곳이 문을 닫으며 중학교는 여수 삼일중이 죽림지구 내 신설 중학교로 통폐합된다.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일부는 도시 이주

하숙비가 지원된다. 통폐합 학교에는 분교 기준으로 20억원이 지원돼 통합학교 시설 개선, 교수학습 자료 확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학생수 감소로 복식수업, 비전공교사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들 학교들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지역 교사 3년새 283명 '명퇴'

전남도 213명으로 늘어

광주지역에서 중도에 학교를 떠나 교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퇴직 교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283명이 교단을 떠났다.

명퇴교사 수도 매년 늘어 2009년 79명에서 지난해 91명, 올해는 113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초등교사가 98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6명과 117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64명, 여자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2009년 217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21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육계에선 연금 혜택 축소 우려와 교원평가제 도입, 영유아교육 강화, 교권 침해 빈발, 학생생활지도 애로 등을 명예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銀江 한정식
옛날방식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름철 고객님의 맛과 건강을 위해 銀江이 혼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옛날방식 그대로 모든 음식을 어머니의 고집대로 우직하게 재래식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단계 높은 한정식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닭장 떡국 ● 굴국밥

銀江 한정식
동구 장동 51-4 (전남여고후문-복개도로)
예약전화. 062. 227. 5986·4986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즉석 프리미엄 뷔페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평일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